50년 천태종 부산포교 원력 결집

천태종부산신도회 50주년 기념법회 및 축제 개최

1969년 150여 불자 모여 발원
광명사, 삼광사 등 불사 진행
신도배가운동, 천태불교 모태
사진전 및 지역축제로 회향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 천태종이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사진은 1978년 5월 광명사서 진행된 부처님 오신날 행사.

"부산에 천태사상이 구름과 같이 크게 흥할 것이며 1만 명을 수용하는 대가람을 세울 것이다."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조사는 1971년 부산 초량동 교육회관에서 진행한 법회에서 신도들을 향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부산 천태종 신도들은 상월원각조사의 원력을 사명으로 받아 천태가람을 불사했고, 천태가람은 불자들의 기도 중심처로 우뚝 섰다.

천태종 부산신도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하며 천태 대표 사찰인 광명사와 삼광사는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활발한 전법포교를 다시 서원한다.

천태종 부산신도회는 창립 50주년 기념 법회를 부산 광명사(주지 개문)와 삼광사(주지 세운)에서 봉행한다. 광명사는 10월 13일 오전11시 경내 불교문화회관 3층 지관전에서 개최하며, 삼광사는 11월 1일 오전 11시 경내 지관전에서 봉행한다.

천태종 부산신도회는 1969년 10월 부산시 동구 좌천동에 위치한 김정숙 불자 집에서 150여 불자가 모여 창립했다. 이후 1970년 9월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조사를 증명법사로 신도배가법회를 열고 신도층을 확대했으며, 1971년 10월 27일 초량동 교육회관에서 열린 법회서는 1000여명이 모일 정도로 활발한 포교 활동을 전개했다.

천태종부산신도회는 1971년 법회에서 천태종 상월원각조사가 증명한 대가람 불사 원력을 받아 불사에 전념했으며 1973년 12월 부산 장전동 부지 3,690평을 매입해 광명사를 건립했고, 1982년 12월에는 부산 초읍동 35,000여 평을 매입해 삼광사를 세웠다. 이후 부산지역에서 천태종은 날로 교세를 확장해 용평사, 정법사, 해영사를 불사하고 각 사찰들은 천태 불자의 신행 보금자리가 됐다.

광명사와 삼광사서 봉행되는 기념법회는 그동안의 역사를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된다.

광명사 신도회 창립 기념법회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과 함께 총무원장 문덕 스님, 종의회의장 도원 스님, 감사원장 진덕 스님, 광명사 주지 개문 스님 등 천태종 주요 스님들이 대거 참석한다. 또한 오거돈 부산시장, 김세연 국회의원, 정미영 금정구청장 등 정관계 인사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법회는 △타종 및 개회선언 △삼귀의 △찬불가 △반야심경 △법어 봉독 △연혁보고 △50주년 기념 동영상 △법어 △축사 순으로 진행되며 오후 2시에는 창립을 축하하는 문화공연도 마련된다.

아울러 광명사는 '백만독 100일 관음정진'을 10월 9일부터 1월 16일까지 100일간 진행하며 광도 스님의 '관음신행' 강좌도 10월 9일 입재, 2020년 1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 밤 10시마다 진행된다.

삼광사는 10월 31일 오후 7시 30분 지관전에서 '상월원각대조사 교성곡' 합창제를 시작으로 신도회 창립 50주년 창립을 기념한다. 11월 1일에 열릴 창립기념법회에는 각계 주요 내빈이 참석할 예정이다. 11월 2일에는 △꽃꽂이 전시 △음식전시 △사진전시 등 지역문화축제 형식으로 행사를 연다. 11월 23일에는 계층 포교를 위한 자리로 청소년음악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12월에는 학술제를 진행해 50주년 기념행사를 마무리한다. 아울러 신도들을 위한 신행 정진을 위해 법화경 산림법회를 11월 2일부터 22일까지 21일간 간 개최하고 신심을 독려한다. 또한 장학금 및 자비의 쌀 전달로 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다.

표충사, 사명대사 '충의' 기린다

10월 6일, 추모헌정 뮤지컬 및 학술 대회 개최



표충사는 10월 6일 오전 9시 30분 표충사 표충서원에서 '제552회 사명대사 추계향사'를 봉행한다. 사진은 뮤지컬 사명 공연모습.

경남 밀양 호국성지 표충사가 사명대사 추계향사를 봉행하고 사명대사의 충의를 기리기 위한 헌정 뮤지컬 및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표충사(주지 법기)는 10월 6일 오전 9시 30분 표충사 표충서원에서 '제552회 사명대사 추계향사'를 봉행한다. 이번 추계향사는 〈사명대사 호국 혼(魂) 선양사업〉 일환으로 향사와 더불어 추모헌정 뮤지컬 '사명'과 학술세미나 '사명대사의 충의와 위상'란 제목으로 개최 될 예정이다.

향사는 불교식으로 진행하는 종사영반으로 시작해 △삼귀의 △반야심경 △사명대사 찬가 △행장기 △내빈소개 △헌향 및 헌화 △헌다 △유교식 석전의례 △뮤지컬 사명 △추모사 △폐회 순으로 진행된다.

또 사명대사의 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표충사는 추모헌정 뮤지컬 '사명'을 무대에 올린다. 뮤지컬 '사명'은 사명대사가 의승병 대장으로 활동하며 전장에서 기록한 일기, 상소문 등이 기록된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새롭게 창작한 희곡이다. 학술 세미나는 오후 2시 설법전에서 열린다. 학술세미나는 '사명대사의 충의와 위상'을 주제로 △사명대사의 사상과 충의정신(이철헌 동국대 교수) △일본인의 사명대사 인식(조영록 동국대 명예교수) △표충사 서간첩으로 본 사명대사의 위상(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이 발표된다. 종합토론에는 동국학원 이사장 법산 스님, 한상길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오경후 동국대 초빙교수가 참여한다. 055)352-1150

밀양=하성미 기자

국내 유일 영성음악축제 대중 속으로

화엄사 9월 27~29일 '2019화엄음악제'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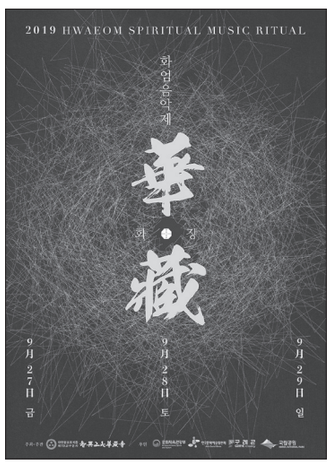
국내 유일한 영성 음악축제인 화엄음악제가 오는 9월 27일부터 3일간 구례 지리산 화엄사(주지 덕문)에서 열린다.

올해 14회를 맞이한 화엄음악제는 '화장(華藏)'이란 주제로 마음챙김, 선다회, 영산괘불대재, 화엄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리산 자연을 배경으로 독창적인 무대연출과 차별화된 음악회를 대중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화엄음악제는 매년 그 해 음악제의 주제어를 선정하여, 장르와 국적을 초월한 세계 각국의 아티스트들이 그 주제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구현해 왔다.

올해 화엄음악제의 주제어는 화장(華藏)이다. 화엄사 내 보제루에 걸려 있는 편액에 쓰여 있기도 한 문구로 불교에서 그리는 이상 세계의 모습인 화장세계에서 비롯된 단어이다. 이번 주제를 통해 힘들었던 일상의 마음을 털어버리고, 내면의 의미를 발견하며 이러한 행복을 마음에 담아 화사한 세계로 나아가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메인 행사인 화엄콘서트는 음악감독으로 선정된 황호준 씨의 '27인조 화엄앙상불'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2013년 국악대상 작곡상 수상자이도 한 황호준 씨는 국악실내악부터 관현악, 서양오케스트라, 재즈앙상블 등 장르를 넘나드는 활발한 작품 활동을 보여주며 평단과 관객들로부터 동시에 호평을 받고 있다. 화엄앙상블은 경기민요 최수정, 판소리 방수미를 비롯하여 위드스트링 앙상블, 재즈피아노의 송지훈, 하모니카, 아코디언, 아이리쉬휘슬 권병호 등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으로 결성됐다.



이외에도 27일과 28일 오후 3시 성보박물관에서 '마음 챙김(Mindfulness)으로 주제로 클레몽 스베스트르(전자음악 즉흥연주), 차승민(대금, 보컬, 일렉트로닉스), 배규자(안무가)&시멘 코르스모 로버트센(연주)의 공연이 진행된다.

27일 오전 10시 영산괘불대전에는 조계종 어산 어장 인묵 스님의 범패공연, 선다회 육법공양이, 저녁 7시 '선다회·다례시연'과 함께 정가악회(창작 국악앙상블), 악단광칠(창작 국악앙상블), 밴드 둘다(가야금, 해금 듀오) 등의 전통창작 국악공연이 열린다.

행사의 마지막에는 29일 오전 10시부터는 △'저절로 일어나는 춤(When it dances) - 배규자(안무가)&시멘 코르스모 로버트센 △몸과 건축 - 착착스튜디오 김대균 소장의 건축이야기 △회향- 이베리 콰이어(다성음악 보컬 앙상블)이 펼쳐져 대미를 장식한다.

공연행 외에도 19~20일 양일 저녁 7시에는 영화음악감독과 함께하는 영화상영회, 10월 10일까지 김광길 작가 '연잎이야기 展'이 경내 성보박물관과 보제루에서 열린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견강암 주지 향공 스님이 취약 계층 쌀을 전달하고 있다.

견강암, 나눔으로 밝힌 한가위

어르신을 위한 만발 공양과 지역 고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으로 나눔활동을 펼치고 있는 견강암이 추석을 맞아 풍성한 한가위를 기원하며 또 다시 거리로 나섰다.

부산 백양산 견강암(주지 향공)은 9월 11일 모라 고동바위공원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하고 어르신을 위한 효 잔치 한마당을 개최했다.

효 잔치에는 견강암 봉사단체 정각원 회원이 동참했으며 지역 어르신 800여명이 찾았다. 견강암은 쌀 500kg을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으며 선발한 장학생 4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주지 향공 스님은 "견강암 봉사에 동참해준 모든 신도들에게 감사한다"라며 "더욱 성장하고 지역민들이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견강암은 다가오는 10월 3일 지역 어르신 600여명을 초청, 무료 효 관광을 진행한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www.eunhae-sa.org

팔공산 은해사 창건 1210주년 개산대재

보살계 수계식·만등불사

도·시민이 함께하는 새바람 행복 경북음악회

아미타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한 미타도량 은해사는 신라 헌덕왕 원년(서기809년) 혜철국사(惠哲國師)께서 창건하신 지 1210주년이 되었습니다. 개산조 혜철국사와 역대조사 스님들의 선맥(禪脈)이 이어 온 은해사 대법회에 교계 대덕 큰스님을 모시고 개산대재 보살계와 만등불사 대법회를 봉행 합니다. 두루 동참하시어 무한한 선업과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불기2563(2019)년 10월

개산대재 대법회

· 10월 5일(토요일, 음 9.7)

오전 9시 30분 개산조 혜철국사와 역대조사 다례재
11시 개산법요식
오후 1시 보살계 수계식
3시 도·시민이 함께하는 새바람 행복 경북음악회
6시 만등불사 점등식

· 동 참 금 : 보살계 – 1인 2만원 / 만등불사 – 1인 1등 1만원

보살계 수계식

자비를 실천하기 위하여 지니는 수행덕목인 보살계(菩薩戒)는 불자라면 반드시 받아야 할 중요한 의식이며, 이미 받았더라도 다시 보살계를 받음으로서 다시 한 번 자리이타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크나 큰 공덕입니다.

도·시민이 함께하는 새바람 행복 경북음악회

■ 일 시 : 10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 출 연 : 설운도, 박현빈, 한혜진, 금잔디, 현숙, 김국환, 김소유, 박구윤, 후니용이, 강민, 박명진 명창 외 특별출연
■ 사 회 : BTN 아나운서 오계윤

■ 동대구역 지하도(오전9시)→하양→은해사
남부정류장(오전9시)→경산→하양→은해사
포항역(오전8시30분)→영천→은해사간 차량 운행합니다.
■ 문의 : 종무소 (054)335-3318 원주실 054)335-5220, 은해사 교구 각 말사
경북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 951 은해사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본·말사